

다시 깊어지는 광주시-전남도 '군 공항 이전' 갈등

시 "군공항은 합평, 민간공항은 무안 이전 가능" 입장 전해 "합평 언급 말라" 전남도 요구 일축...불협화음 갈수록 커져 "시도지사 빨리 만나야"...합평·무안군 포함 4자 논의도 제안

군 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상생을 해도 모자랄 판에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합평을 언급하지 말라"는 전남도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양 시도의 불협화음도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광주시는 15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전남도가 (최근 기자 상담회에서) 합평군 언급 중단을 요청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광주시의 입장은 분명하다. 무안군과 합평군 모두로부터 유치 의향이 제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합평군은 지난 6월 말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전남도에서 연기를 요청해 12월 말로 연기한 바 있고 곧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군민이 동의한다면 군 공항은 합평으로, 민간 공항은 무안으로 같은 시기 이전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특히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도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기까지 최소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기간에 민간 공항 이전 시기를 포함해 각 지자체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논의

하고, 광주시가 제시한 1조원 직접 지원형 사업 외에도 시와 유치 희망 지자체 간 경제·산업 시너지를 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또 "전남 내 지자체가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부탁한다"며 "이를 위해 전남도에 즉각적인 시도지사 간 만남을 요청하고 그 만남에서 전남도, 광주시, 합평군, 무안군 4자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군 공항과 민간 공항 이전 지역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광주시의 입장 발표는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을 무안으로 동시 이전하고, 이전 후보 지역에서 합평을 배제해야 한다는 전남도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앞으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도 안팎에선 이날 광주시가 제안한 시·도지사 간 만남과 관련 자치단체 4자 논의 등도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등이 나오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개막 강기정 광주시장이 15일 오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회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코로나 1335일의 숨 가쁜 기록

광주시, 백서 발간

2020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광주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담은 백서가 발간됐다.

광주시는 15일 '광주시 코로나19 대응 백서-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1335일간의 숨 가쁜 기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코로나19 그 정체는 ▲코로나19 선제 대응 ▲코로나19 대응 열정의 현장 ▲코로나19 선도적 위기 극복 ▲광주시 8대 위기 대응 주요 사례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제언 ▲부록-미담·수범사례 등 모두 7장으로 구성됐다.

2020년 1월 4일 자치구 보건소 1급 감염병 비상 연락망 정비, 2월 3일 지역 첫 확진자 발생, 7월 2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을 거쳐 2021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선언, 지난 8월 31일 위기 단계 조정까지 전 과정을 기록했다.

3년 8개월 동안 8차례에 걸친 지역 내 대우 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휘된 시민의식과 행

정력도 부각했다.

한눈에 보는 타임라인을 시작으로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방역 대책본부 구성·운영 과정,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24시간 병상 배정 등 대응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 대책, 현장의 미담과 함께 감염병관리과를 지킨 직원들의 명단도 빠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사업소, 시의회, 자치구 보건소 등 지역은 물론 중앙 부처, 전국 시도, 유관 기관, 의료 기관, 의약 단체 등에도 백서를 배부할 계획이다. 광주시 누리집 복지·건강 자료실에도 수록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거대한 감염병에 맞선 각종 방역 대책은 물론 구체적 재난관리체계, 재난극복 과정을 정리했다"며 "백서가 지난 시간을 담은 기록의 의미를 넘어 앞으로 유사한 위기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흥군-고흥경찰 '드론합동순찰대' 뒀다

야간 치안·화재·산사태 상황 전달 등 섬지역 맞춤 업무 수행

고흥 시산도 등 유인도의 치안을 맡게 될 '드론합동순찰대'가 지난 14일 출범했다.

드론합동순찰대는 섬에서 남몰래 이뤄지는 각종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인계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된다.

순찰대에서 활용하게 되는 치안드론은 최근 개발된 것으로 장기 체공이 가능하며, 휘발유 엔진과 전 기모터를 함께 사용해 90분 이상 체공이 가능하다.

기존 경찰 드론과는 다른 대형드론으로 내풍성이 강해 바람이 강한 섬 지역에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야간순찰에 적합한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 탐조등과 150m 상공에서 정확하게 음성 전달되는 스피커 등 치안 활동에 적합한 장비를 탑재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4일 전남테크노파크 고흥드론센터에서 '고흥경찰서-고흥군 드론합동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 후 고흥만 일대에서 드론합동순찰대 임무수행 시연도 진행됐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섬 지역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안 드론 운용 체계를 기획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과학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8억원을 들여 지난 7월까지 고흥군, 순천대, 대

한항공,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섬 치안 맞춤형 드론을 개발했다.

드론 합동 순찰대는 이동형 관제자랑을 활용해 순찰이 필요한 장소까지 이동 후 경찰관이 쉽게 순찰하지 못하는 섬, 갯벌 등 지역을 순찰하고, 필요 시 고흥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제센터, 고흥경찰서로 영상을 연동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게 된다.

조만형 위원장은 "고흥경찰서-고흥군 드론 합동 순찰대 발대는 주민-대학-기업-지자체-경찰이 함께 현장에서 치안 문제를 찾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는 모범적 사례"라며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주민 중심, 지역사회 협업 치안, 전남 특성에 맞는 과학치안을 꾸준히 발전시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의원들, 서울 메가시티 중단 촉구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메가서울'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해 건의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는 15일 오전 10시 제 376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2차 본회의를 열고 이규현(민주당 양 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부추기는 '메가서울'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다.

건의안은 국민의힘이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메가서울 추진론'을 꺼내들며 국가균형발전,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의 문제를 도외시키고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총선용 의제를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비판을 담았다.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메가서울 추진론은 지방시대 선포와 함께 균형발전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 행태"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대선, 총선의 정치적 사안이 절대 될 수 없으며,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달린 엄중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남도의원들은 또 "전 국민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해 국가백년대계의 국토균형 발전을 올바르게 지켜내야만 나라가 똑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며 "전남도의회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필두로 확산되는 '메가 서울 추진론'을 단호히 반대하고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